



구원론

죄가 없다고 말하면

1 기도 2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(142쪽)

3 말씀 읽기 요한일서 1:8-10

-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
-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
-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

4 말씀 이해하기

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주요한 이단적인 가르침은 영지주의였습니다. 영지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영적 지식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. 또한 영과 육을 나누고,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면,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. 사도요한은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(10절).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면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?

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. 또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. 성도가 되었다면 그가 죄를 범한다고 하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성도는 예수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직도 부패와 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부패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가 일평생 싸우며 정복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. 성도는 이 부패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은혜를 힘입어 성도는 죄를 죽이며 거룩을 더해 갑니다.

이렇게 죄와 싸우고,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을 '회개'라고 합니다. 성도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를 애통해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. 그로 인하여 점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. 회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성도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하여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.

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

1. 사도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이라고 말합니다(8절).
2.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의 하나가 였습니다.
3. 성도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아직도 와 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4. 성도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?

5. 항상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?

6 함께 하는 기도

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,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.

7 주기도문